

인칭에 따른 「~しよう」와 「~하자」의 비교연구*

全 成 龍**

目 次

1. 들어가며
 2. 인칭변화에 따른 모달리티적 의미의 변화
 - 2.1. 1인칭의 경우
 - 2.2. 1·2인칭의 경우
 - 2.3. 2인칭의 경우
 - 2.4. 3인칭의 경우
 3. 마치며
-
-

1. 들어가며

일본어에 있어서 「~しよう」(정중체는 「~しましよう」)라는 동사의 형태와 한국어에 있어서의 「~하자」(정중체는 「~합시다」)라는 동사의 형태가 각각의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 「~しよう」와 「~하자」의 모달리티적 의미가 인칭에 따라 변하는데, 모달리티적 의미가 각 인칭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또 일본어의 「~しよう」와 한국어 「~하자」의 대응관계는 어떠한지를 비교해 살펴보기로 한다.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일반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일어학 전공

2. 인칭변화에 따른 모달리티적 의미의 변화

2.1. 1인칭의 경우

일본어에 있어서 「~しよう」라는 동사의 형태가 1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이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여지 듯 話者の 意志를 나타낸다.¹⁾

例1; 花嫁は、夢見心地でうなずいた。メロスは、それから花婿の肩をたたいて、「支度のないのはお互いさま。わたしの家にも、宝とっては、妹と羊だけだ。ほかには何もない。全部あげよう。もう一つ、メロスの弟になったことを誇ってくれ。」(走れメロス)

例2; 目が覚めたのは明るる日の薄明のころである。メロスははね起き、南無三、寝すごしたか、いや、まだまだ大丈夫、これからすぐに出発すれば、約束の刻限までには十分まにあう。今日はぜひとも、あの王に、人の信実の存するところを見せてやろう。(走れメロス)

例3; よろよろ起き上がって、見ると、岩の裂け目から滾々(こんこん)と、何か小さくささやきながら清水がわき出ているのである。その泉に吸いこまれるようにメロスは身がかがめた。水を両手ですくって、ひと口飲んだ。ほうと長いため息が出て、夢から覚めたような気がした。歩ける。行こう。(走れメロス)

例4; 「願いを、聞いた。その身代わりを呼ぶがよい。三日目には日没までに帰って来い。遅れたら、その身代わりをきつと殺すぞ。ちょっと遅れて来るがいい。おまえの罪は、永遠に許してやろうぞ。」(走れメロス)

일본어에 있어서 「~しよう」라는 동사의 형태가 1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話者の 意志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 있어서 「~하자」라는 동사의 형태도 1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話者の 意志를 나타내지만, 이렇게 話者の 意志를 나타내는 「~하자」라는 例文을 작품 속에서 실지로 찾기로 일본어의 「~しよう」처럼 그리 쉽지 않았다.

例5; 8월 27일 오후 2시. 결국 족집게를 찾았다. 엄마는 내가 아빠의 넥타

1) 高橋太郎 『動詞の研究』 p.23

이 서랍에 있는 족집게를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넥타이 서랍에서 족집게 말고도 이상한 물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상자에 들어있는 앞치마였다. 부디 아빠가 특이한 복장 도착자(倒錯者)가 아니길 빈다. (중략)

8월 30일 오후 1시. 나는 아직 아빠의 앞치마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다.

9월 1일 오후 7시. 엄마가 말했다. “그건 아빠에게 특별한 앞치마야 ‘정신차리고 살자’ 뭐 그런 의미가 담긴 일종의 단복이지. 자, 이제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겠지?”(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

例6; (혼자서 미니 채소를 먹으며)

“으음 맛있다. 하나 더 먹자.”

(2006.3.3 (금) SBS 투데이 「미니 채소가 뜬다」에서)

그런데 일본어는 「~しよう」의 정중체인 「~しましょう」도 1인칭 문장에서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다음 例7·例8에서 보여지 듯 話者の意志를 나타내지만, 한국어의 경우 「~하자」의 정중체인 「~합시다」라는 형태는 1인칭 문장에서 사용되지 못한다.

例7; 「なるほどねえ。貴女だったら、御亭主の首根っこをグッと抑えつけた家庭をつくっていこうからね。そういう気の毒な男の面を見たいものだ。いや、人間なにかとり柄があるもんだな。……それじゃあ、僕は二階に引き上げましょう。そして、僕の炬燵にもぐりこんで、勝手な妄想にふけることにしましょう」(若い娘)

例8; 僕たち、寂しく無力なのだから、ほかになんにもできないのだから、せめて言葉だけでも、誠実こめてお贈りするのが、まことの、謙譲の美しい生き方である、と僕は今では信じています。常に、自身にできる限りの範囲で、それを成し遂げるように努力すべきだと思います。どんなに小さいことでもよい。タンポポの花一輪の贈り物でも、決して恥じずに差し出すのが、最も勇氣ある、男らしい態度であると信じます。僕は、もう逃げません。僕は、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毎日、毎日、歌を作ってお送ります。それから、毎日、毎日、あなたのお庭の塀の外で、口笛吹いて、お聞かせしましょう。あしたの晩の六時には、早速口笛、軍艦マーチ吹いてあげます。僕の口笛は、うまいですよ。(葉桜と魔笛)

또 일본어는 다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しよう」라는 형태든지, 「~し

ましよう」의 형태든지 형태론적으로 이들 뒤에 의문조사 「か」를 붙여 의문형을 만들 수 있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못하다.

例9; わたしは、永遠に裏切り者だ。地上で最も、不名誉の人種だ。セリヌンティウスよ、わたしも死ぬぞ。きみといっしょに死なせてくれ。きみだけはわたしを信じてくれるに違いない。いや、それもわたしの、独りよがりか? ああ、もういっそ、悪徳者として生き延びてやろうか。(走れメロス)

例10; 今は、——年取って、もろもろの物欲が出てきて、お恥ずかしゅうございます。信仰とやらも少し薄らいでまいったのでございましょうか、あの口笛も、ひょっとしたら、父の仕業ではなかったらうかと、なんだかそんな疑いを持つこともございます。(葉桜と魔笛)

2.2. 1·2인칭의 경우²⁾

일본어에 있어서 「~しよう」라는 동사의 형태가 1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話者の意志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1·2인칭의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권유를 나타내는데, 의지나 권유냐에 대해 鈴木重幸씨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³⁾

さそいかける形は、テキストにあるように、二つの意味(さそいかけ、意志)にもち이られる。さそいかけと意志のちがいは、動作の主体が、さそいかけでは話し手とあい手であるのに対し、意志では話し手だけである点である。この二つの意味のちがいは、主語、修飾語、独立語や文脈、場面などで区別される。

例11; 「いま、皮を研究班に渡してきました。それをとかすビールスを作らせています」
「それはいい。やつらの皮膚がビールスにおかされ、どろどろにとけるのを、われわれはここから見物できるわけだな。早く見たいものだ」
彼らは期待でわくわくしながら待った。そのうち研究班が完成を知らせに来る。
「できました」
「よし、さっそくばらまこう」(ねらわれた星)

例12; 「ええ、ほんとうよ。お兄ちゃんは新聞配達をしてがんばってくれてるし、淳ちゃん

2) 이것은 高橋太郎·鈴木重幸 씨의 용어로 話者と 聽者を 포함한 개념임. 高橋太郎 『動詞の研究』 p.23. 鈴木씨는 『日本語文法·形態論』 p.54 에서 一=二人称라고 표기하고 있음

3)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p.316)·むぎ書房

がお買い物や夕飯のしたくを毎日してくれたおかげで、お母さん安心して働くことができたの。よくがんばったからって、会社から特別手当をいただいたの。それで支払いをぜんぶ終わらすことができたの」

「お母さん! お兄ちゃん! よかったね! でも、これからも、夕飯のしたくはボクがするよ」

「ボクも新聞配達、続けるよ。淳! がんばろうな!」(一杯のかけそば)

例13; 「こんどは、あの星の連中をやっつけて楽しもうぜ」

金属質のウロコで全身をおおわれた生物は、彼らの宇宙船のなかで、仲間にこう言った。

「よかろう」(ねらわれた星)

例14; 「さあ、もうすぐ、やつらののたうち回って苦しむところが見られるぞ」

「そら、効いてきた」

しかし 彼らは不満げな声で話しあった。

「おかしいぞ。やつらはあわてているが、だれも死なないじゃいか。死なないどころか、なかにはむしろ喜んでいるやつもいるようだ」

「変ですね。なんだか薄気味わるくなってきた。もうやめて引きあげましょう」

「ああ、べつの星にいこう」(ねらわれた星)

일본어에 있어서 「~しよう」라는 동사의 형태가 1·2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권유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 있어서 「~하자」라는 동사의 형태도 1·2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권유를 나타낸다.

例15;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꿈)

例16; “이사간 텔 아시죠?”

“압, 알쟈구.”

“사무장님을 만났어요.”

잠이 들 듯 말 듯한 상태에서 나는 말했다.

“아주머니가 다 말씀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다른 말은 없었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잠 자라. 자구 나서 우리 얘기하자.”

“말씀을 듣기 전엔 못 잘 것 같아요.”(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例17; “영회를 보았다는 사람은 주정뱅이 아저씨밖에 없었어”

변명하듯 내가 말했다.

“비행접시가 내렸다는 곳이 여기야.”

“그래 밤새도록 뭘 봤니?”

“형은 내가 그 아저씨 말을 믿었던 것 같아?”

“아니.”

“찾아나설 데가 있어야지.”

“그만 들어가자.”

“형은 영회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너희들 때문이야.”

어머니는 말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리고 일본어에 있어 「~しましょう」라는 형태도 1·2인칭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권유를 나타내며,

例18; 「あいすみません。……ところで、僕が婦人科を専攻にしたのは、天使や女神のようにすばらしく思われる婦人でも、動物のメスとしての、素朴で原始的な生理から脱却できないのだということを、しょっちゅう自分に確かめさせておきたかったからです。つまり、女性というものを、高からず低からず、正確に理解したかったからです……」

「なんだか意味ありげですね。私はまた女の身体をのぞきたいからではなかったのかしら —— と思ったりしていましたわ」

「失礼!」

「失礼。……さあ、はじめにこれだけ諒解あっておいて、このあと私たちは仲

良く暮らすことにいたしましょう……」 (若い娘)

例19; 彼らの宇宙船はその星を一周し、ビールスをまんべんなく、まきちらした。

「さあ、もうすぐ、やつらののたうち回って苦しむところが 見られるぞ」

「そら、効いてきた」

しかし、彼らは不満げな声で話あった。

「おかしいぞ。やつらはあわてているが、だれも死なないじゃいか。死なないどころか、なかにはむしろ喜んでいるやつもいるようだ」

「変ですね。なんだか薄気味わるくなってきた。もう やめて引きあげましょう」

「ああ、べつの星にいこう」 (ねらわれた星)

例20; 「お母さん、頭のいい人間は、三月おつき合いをすると、よその人たちが三年間 おつき合いたよりも、深く理解し合うものなのよ。お母さん、私といっしょに暮らす?」

「ああ、暮らしますよ、お前となら……」

「そうしようね。……足自慢の孫悟空が何千万里を飛び 駆けたと思っても、仏様の掌から脱(ぬ)け出すことができなかつたそうだけど、私もそれに 似ていたわ。人間なんて……女なんて……弱いものね」

「弱いことを知りながら、気をつけて、強く生きるようにするんだよ……」 (若い娘)

한국어의 「~합시다」 라는 형태도 1·2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권유를 나타낸다.

例21; 황홀해져 있으면 괴로움이 찾아 들지요.

어느새 보니, 이게 소설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연극도 그런 식으로 해 봅시다 요!

생생한 인간 생활 속에 손을 꼭 넣어봅시다 !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파우스트)

例22;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모였으니, 자, 시작합시다! (파우스트)

例23; 얼른 떠나기로 합시다.

여긴 정말 지독한 고문장이군요!

자기 자신도, 학생들도 지루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파우스트)

例24; 그런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살도 피도 아끼지 않소. (파우스트)

그런데 「~しましよ」와 「~합시다」의 차이점은 일본어의 「~しましよ」라는 형태는 위의 예 19·20에서 보여지 듯 손윗사람(예 19; 상관·예 20; 어머니)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합시다」라는 형태는 손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 2인칭의 경우

앞의 1·2인칭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話者が 聽者에게 어떤 동작(행위)을 요구하는데 있어 그 동작(행위)을 話者が 함께 하면 「~しよ」라는 형태는 권유의 의미가 되었다. 그런데 話者が 聽者에게 어떤 동작(행위)을 요구하면서 話者は 행하지 않고 오로지 聽者에게만 그 동작(행위)을 하기를 바라고 요구할 때, 즉 「~しよ」라는 동사의 형태가 2인칭 문장의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 듯 「~しよ」라는 형태는 명령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여기에 대해 仁田義雄씨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⁴⁾

さらに、「シヨウ」の形は、誘いかけの形を取りながら、機能的には命令相当としても使われる。たとえば、小学校の一年生の教室で先生が子供達に、「さあ、静かにしましよ。」と言え、これは静かにすることの中に話し手の先生が含ま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結果的に静かにする動作主体は聞き手である子供達だけに限られており、動作主体が二人称者であるところの命令と機能的に等価であることになる。

例25: 「あのー…… かけそば…… 一人前なのですが…… よろしいでしょうか」

「どうぞ どうぞ。こちらへ」

女将は、昨年と同じ二番テーブルへ案内しながら、

「かけ一丁!」

と大きな声をかける。

「あいよっ! かけ一丁」

と主人はこたえながら、消したばかりのコンロに火を入れる。

「ねえ お前さん、サービスということで三人前、出してあげようよ」

そっと耳打ちする女将に、

4) 仁田義雄 『日本語のモダリティ化人称』 (p.33) · ひつじ書房

「だめだ。そんな 事したら、かえって気をつかうべ」(一杯のかけそば)

例25를 보면 부인인 女将은 홀에서 안내를 하는 입장이며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인 女将이 남편에게 「ねえ お前さん、サービスということで三人前、出してあげようよ」라고 살짝 귀엣말을 했을 때, 부인도 주방에 있었기에 [권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음식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남편이기에 (부인인 女将은 음식을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음) 「ねえ お前さん、サービスということで三人前、出してあげようよ」에서의 「出してあげようよ」의 의미를 「出してあげなさいよ」로 보아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 듯 한국어의 「~하자」도 동일하다.

例26;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애들아 조금 조용히 하자. 알았지?

다음의 例27도 [살펴보다]라는 동작(행위)에 話者が 포함 되냐? 포함되지 않냐?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일 [살펴보다]라는 동작(행위)에 話者が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명령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例27; 현재 인간 사회를 살펴보자.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의 과잉 생산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기업의 사회 환원운동은 공동체에 의해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4·11 조선일보의 아침논단)

이와 같이 話者を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명령의 의미로 鈴木重幸씨는 「交通道徳を まもりましょう!」라는 例文을 들고 있으며⁵⁾, 仁田義雄씨는 「子どもにいたづらをし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茨城市立中津小学校」라는 例文을 들고 있다⁶⁾. 그런데 한국어에 있어서도 例28과 같이 「~하자」의 정중체인 「~합시다」도 2인칭 문장의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話者を 포함하지 않기에 명령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5)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p.58) · むぎ書房

6) 仁田義雄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 (p.213) · ひつじ書房

例28;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버스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읍내에서 하루에 꼭 한번 들르는 시외버스였습니다. 몇 년을 한결같이 이 버스만 몰아 온 기사는 구석구석 들어앉은 동네며, 장날 누가 읍내를 가는지 까지 훤히 꿰 정도였습니다.

“아이구 우짤다. 버스 놓치겠네.”

한 할머니가 헉헉대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던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한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기 할머니가…….”

기사의 눈에 멀리서 보따리를 이고지고 달려오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행여 버스를 놓칠세라 종종걸음을 쳤지만 버스 쫘무니가 멀게만 보였습니다.

“에이. 이거 나 원 참…….”

마음이 급한 승객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출발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거요?”

참을성 없는 승객이 울그락불그락 바쁘다고 재촉하자 기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기 우리 어머님이 오고 계셔서요.”

(느림보 버스)

2.4. 3인칭의 경우

「~しよう」라는 형태가 다음 예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3인칭 문장에서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추측의 의미가 된다. 여기에 대해 鈴木重幸씨는 「文語的な文体では、さそいかける形がおしはかりの意味をあらわすことがある。とくに無意志動詞では、さそいかける形は、おしはかりの意味でしかもちいられない」라고 논하면서 「そんなことも あろう。」 「あすは 雨が ふりましょう。」 라는 예문을 들고 있으며⁷⁾, 仁田義雄씨는 「明日は全国的に晴天に 恵まれましょう」 라는 예문을 들고 있다.⁸⁾

例29; メロスも、満面に喜色をたたえ、しばらくは、王とのあの約束をさえ忘れていた。

祝宴は、夜に入っていよいよ乱れ華やかになり、人々は、外の豪雨を全く気にしなくなった。メロスは、一生このままここにいたい、と思った。このよい人たちと生涯

7)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p.318) ・むぎ書房

8) 仁田義雄 『日本語のモダリティ化人称』 (p.212) ・ひつじ書房

暮らしていきたいと願ったが、今は、自分の体で、自分のものではない。ままならぬことである。メロスは、わが身にむち打ち、ついに出発を決意した。明日の日没までには、まだ十分の時がある。ちょっとひと眠りして、それからすぐに出発しよう、と考えた。そのころには、雨も小降りになっていよう。(走れメロス)

例30; 前に書いたように、この附近で水のあるのは、まず私の分隊小屋のあった谷である。がそこへ行くには、今は米軍の占拠する中隊本部の山を越えねばならない。第二はやや遠いがこの谷川についてどこまでも下って、その注ぐ別の大きな川に達することである。しかしそれにはさっき二人の軍曹の語らった地点を通らねばならず、それはこの谷を横切る主要道路の一つであるから、なお米軍のいる公算大である。少なくとも日暮れまで彼等はそこを去らないであろう。(俘虜記)

例29·30에서 보여지 듯 일본어에서는 「~しよう」라는 형태가 3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이지만, 한국어의 「~하자」라는 형태는 3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이지 못하며, 또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 듯 일본어는 「~しましょ」가 3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도 「~しよう」와 동일하게 추측의 의미가 되지만 한국어의 「~합시다」라는 형태는 「~하자」와 동일하게 3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이지 못한다.

例31; 神様は、在る。きっと、いる。私は、それを信じました。妹は、それから三日目に死にました。医者は、首をかしげておりました。あまりに静かに、早く息を引取ったからでございましょう。けれども、私は、その時、驚かなかった。何もかも神様の、おぼしめしと信じていました。(葉桜と魔笛)

例32; 学校のお勤めからお帰りになって、隣りのお部屋で、私たちの話を立ち聞きして、ふびんに思い、厳酷の父としては一世一代の狂言したのではなからうか、と思うことも、ございしますが、まさか、そんなこともないでしょうね。父が在世中なれば、問いただすこともできるのですが、父が亡くなって、もう、かれこれ十五年にもなりますものね。いや、やっぱり神様のお恵みでございましょう。(葉桜と魔笛)

3. 마치며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여기에서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어의 1인칭 문장에서 동사의 「~しよう」라는 형태가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話者の 意志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하자」라는 동사의 형태도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話者の 意志를 나타낸다. 그런데 일본어는 「~しましよう」도 1인칭 문장에서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話者の 意志를 나타내지만, 한국어의 「~합시다」라는 형태는 1인칭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으며, 또 일본어는 「~しよう」라는 형태든지, 「~しましよう」의 형태든지 형태론적으로 이들 뒤에 의문조사 「か」를 붙여 의문형을 만들 수 있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못하다.

② 1·2인칭 문장에서는 일본어의 「~しよう」라는 형태나 「~しましよう」라는 형태나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권유를 나타내며, 이와 동일하게 한국어의 「~하자」라는 형태도 「~합시다」라는 형태도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권유를 나타내지만, 일본어의 「~しましよう」라는 형태는 손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에 반해 한국어의 「~합시다」라는 형태는 손윗사람에게 쓸 수 없는 차이가 있다.

③ 2인칭 문장에서는 일본어의 「~しよう」라는 형태나 「~しましよう」라는 형태나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명령을 나타내며, 이와 동일하게 한국어의 「~하자」라는 형태도 「~합시다」라는 형태도 文末述語로 쓰일 때는 명령을 나타낸다.

④ 3인칭 문장에서는 일본어의 「~しよう」라는 형태나 「~しましよう」라는 형태나 모두 文末述語로 쓰이지만, 한국어의 「~하자」와 「~합시다」라는 형태는 쓰이지 못하며, 이 때 일본어의 「~しよう」와 「~しましよう」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参考文献】

-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形態論』,むぎ書房. p.54-58, p.316-318
 高橋太郎 外(1994) 『日本語の文法』講義テキスト
 高橋太郎(1994) 『動詞の研究』,むぎ書房. p.23
 仁田義雄(1991)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ひつじ書房. p.33, p.212-213
 松村 明編(1988) 『大辞林』,三省堂.
 宮島達夫(1994) 『語彙論研究』,むぎ書房.

【出典一覽】

石坂洋次郎 「若い娘」(『女同士』所収・角川文庫・昭和五十三年・改版十五版)
大岡昇平 『俘虜記』(新潮文庫・平成二年・四十一刷)
太宰 治 「走れメロス」(『走れメロス』所収・新潮文庫・二十五刷)
太宰 治 「葉桜と魔笛」(『新樹の言葉』所収・新潮文庫・昭和六十二年・九刷)
星 新一 「ねらわれた星」(『ボッコちゃん』所収・新潮文庫・昭和五十七年・三十四刷)
栗 良平 「一杯のかけそば」(『栗っ子童話シリーズ 栗良平作品集2』所収)

괴테 『파우스트(世界名작 100선 34)』(김양순 옮김 일신서적출판사)
루이 레이슨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이은정 옮김 (주)아침나라)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문학과 지성사.1997년 3월 10일 23쇄)
느림보 버스 (『TV동화 행복한 세상』(주)샘터사. 2002년 12월 31쇄)
조선일보 (2005·4·11 「아침논단」)



要 旨

この論文は日本語における動詞の「～しよう」（丁寧な言い方は「～しましょう」）という形が文末述語として使われる時、それが表すモダリティの意味が人称（1人称、1・2人称・2人称・3人称）によってどういふふうに変ってくるのかを実例に基づいて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り、また、日本語の「～しよう」にあてはまる韓国語の「～하자」との比較によって、韓国語の「～하자」とは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文末述語・しよう・しましょう・하자・합시다・人称

투 고 : 2006. 8. 31
1차 심사 : 2006. 9. 9
2차 심사 : 2006. 9. 30

住 所 :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청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19-475-3338
e-mail : immanual@cju.ac.kr